

김광남 역사
그레고리오 성가
Fine

하늘 - 은 이 슬비 - 처럼 - 의 인을 내 - 려다 - 오

1. 주여 분노 - 마옵 - 시고 우리 죄악을 기억마 - 옵시 - 며
2. 주여 영혼 - 이때 - 묻고 생명 없는 가랑잎 같 - 으므로
3. 주께 서이 - 르시 - 기를 너희는 내 간택을 받 - 았나 - 니
4. 안심하여 - 라백 - 성아 가련한 자들아 안심 - 하여 - 라

주의 성읍 광야 되고 시온이 광 - 야 되었으며
우리 죄악 바람처럼 우리를 몰 - 아갔나이다
나를 믿게 하였으며 나는 너희 - 주친 - 주라
네 구원이 임하리라 나 너희 죄 - 를 안개처럼

예루살렘에 주우리에게 나외에는 없애.

성전노를 들라.